

수원 장시의 존재 및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수원시 팔달구 일대 ‘남문시장’ 을 중심으로 -

인문정보학과 석사과정 윤종훈

1. 연구목적 및 대상

2. 선행연구

- 2.1. 수원 장시에 관한 연구
- 2.2. 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관한 연구
- 2.3.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

3. 지역 개괄

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원 전통시장의 변화 과정과 존재 양상에 대해 파악하고 분화하는 원인에 대해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본 주제를 설정하게 된 문제의식의 흐름은 수원의 우시장의 변화 및 소멸 과정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후기 화성 건설 당시, 정조는 수원의 도시적 발전과 자립을 위해 정조는 수원에 둔전(屯田)설치를 장려하였고 이는 곧 둔전 경영을 위한 소의 체계적인 사육과 소비가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수원에는 소의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우시장이 등장하여 자리잡게 되었는데, 수원의 우시장은 전국의 3대 우시장 중 하나라고 불려질만큼 많은 소 거래량을 자랑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충청, 전라 지역의 소들 역시 수원 우시장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안쪽 시장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러한 우시장은 해방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외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며 중심지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1998년을 기점으로 곡반정동 축산시장을 마지막으로 수원 지역에서 우시장이라는 전통적인 형태의 장시형태는 사라지게 되었다. 서울의 마장동 혹은 독산동 축산시장의 경우는 수원 우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축산시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명사처럼 변모하여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 수원 우시장의 경우 현재에는 과거 우시장이 있던 자리에 다른 주거시설들이 조성되면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수원의 우시장과 같이 중심지에서 멀어지면서 소멸된 장시가 있는 반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과거의 장시의 모습을 일부 유지하면서 이른바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의 형태로 존속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수원의 경우 영동시장¹⁾, 팔달문시장²⁾, 지동시장³⁾, 못골종합시장⁴⁾, 미나리광장시장⁵⁾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들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하여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다섯 개의 시장은 현재 수원 화성의 남문과 팔달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시장간의 거리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할만큼 매우 조밀하게 위치가 형성되어 있다. 후술할 화성 축조 직후에 이전된 새로운 수원 읍내장은 남문(화성 팔달문)의 바깥장이었으며, 이 중심적인 입지는 지금의 영동시장이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 이후 현재까지의 수원읍내장의 변화과정은 어떠했을까. 분명 수원 장시의 입지와 위세의 변화는 수원부 읍치의 이전이나 화성 축조와 같은 도시 계획의 영향을 필히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도시 계획은 식민지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기에, 각 시기에 진행되었던 도시화에 따른 장시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장시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또는 상업적 변화 역시 장시의 입지 조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한 화성 남문 일대에 구분되어 밀집되어 있는 다섯 개의 전통

-
-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 6 (영동)
 -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6번길 8
 - 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3
 - 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8번길 10-12
 - 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64번길 15

시장의 존재 양상을 재구성하고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원읍내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내에서 각각의 장시가 특성을 가지며 분화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수원의 지역사 연구는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는데, 조선 후기 화성 축조와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연구와 한말·일제하의 수원 지역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양적으로는 전자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이정일의 연구가 조선 후기 수원의 도시적 변화⁶⁾와 장시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⁷⁾ 수원 장시의 초기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①수원 장시에 관한 연구, ②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설과 연구방법을 설정하고자 한다.

2.1. 수원 장시에 관한 연구

수원장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조선 후기 화성 건설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정승모(2014)의 일련의 연구는 수원의 장시체계의 변화 요인에 대해 ①화성 건설로 인한 도로 및 유통망의 변화, ②철도의 개발로 인한 유통망의 변화, ③일본인의 상권 개입을 통해 설명하였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시기에서의 수원 장시의 존재 양상과 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 후기의 수원 장시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전술한 이정일(2000, 2002)의 연구가 있다. 이정일(2000, 2002)에서는 18세기~19세기의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수원의 행정구역 및 인구의 변화와 연관지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관점으로 참고할만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05년부터 수원문화원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수원학연구』⁸⁾에서도 수원 장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주혁(2010)의 연구 역시 1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수원 장시의 변화상을 다루었으며, 최자운&김상범(2010)의 연구는 수원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조사를 통해 영동시장⁹⁾의 존재양상 파악을 시도하였는데, 수원 장시 연구에 있어서 미시사적인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수원 화성 남문 일대에 밀집되어있는 시장들의 분화과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이상열(2014)의 연구는 해방 이후의 ‘전통시장’이라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념의 등장과 1960년대 이후 대두되었던 근대화 담론을 현대의 수원 시장 형성과 연관지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수원 장시를 대상으로 한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까지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또한 현대의 도시화

6)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 - 인가와 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7)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 지역의 장시연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8) 수원문화원이 수원문화사연구회를 해체하고 2004년에 창립한 수원학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이다. 현재는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에서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9) 현재 수원 영동시장의 입지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남문밖시장이 지금의 영동시장으로 변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과정에서 개정된 전통시장에 관한 제도¹⁰⁾적 측면에서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달문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9개의 전통시장¹¹⁾의 분화과정에 대해서 다른 바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듯하다. 남선녀(1988)의 수원 노점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1966년 지동시장, 1971년 매교시장, 1977년 화서시장 등은 영동시장 일대의 노점상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기 위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 시장마다 다른 주요 거래항목과 입지 형성의 과정과 원인에 관한 조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2. 수원의 도시공간과 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우시장은 몇 차례 위치를 이전하면서 점차 당시의 중심지였던 화성 권역으로부터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입지적 변화에 대해 수원우시장의 위상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도시 구조의 변화나 상업적 중심지의 변용과의 연관성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에 수원의 도시 구조와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수원의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는 이재환(2002)과 같은 건축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선 시대 읍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수원학연구』에 수록된 윤효진(2005), 성주현(2005), 이동근(2008)은 일제하에서 진행된 수원의 도시화 과정에 관해 다루었다. 윤효진(2005)은 근세 이후 수원의 도시 공간과 구조의 변화양상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이며 성주현(2005)과 이동근(2008)은 식민지기에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수원의 근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김백영(2012)의 연구 역시 본 연구목적의 선행연구로써 필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식민지기의 도시 근대화과정에 대해 경관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제의 도시정책의 관점에서도 자세히 논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제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수원의 도시적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이창수(2014)는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의 수원의 도시계획과 개발 과정을 제도와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이로 인한 수원 지리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재구성하였다.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또한 생활·문화의 중심지였던 수원 화성과 팔달구 일대가 현대의 도시화와 외곽지역의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이 해방 이후부터 2000년대의 시기에 보여진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창수(2014)의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초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수원이라는 도시의 근대화 과정의 현장을 경험한 수원 토박이들에 대한 구술조사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안승택, 2014). 해방과 전쟁 이후 수원의 근대화는 이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토박이들에게 다가왔기에 이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과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 놓여진 수원의 생활상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10) 1995년 12월 29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093호)이 제정되어 전통시장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11) 구천동공구상가, 남문로테오, 남문패션1번가,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 영동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이 팔달문 일대에 등록된 전통시장들로, 주민들을 이들을 통틀어 ‘남문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3.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

수원은 과거에서부터 거주지 환경으로써 매우 적절하고,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과 매우 근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중요성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장기간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식주와 직결되어있는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수원의 경우 조선 후기 화성(華城) 축조를 기점으로 국가차원에서의 계획도시로 변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농업의 발전과 함께 장시의 활성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수원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당시 수원읍내장이 1·6장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¹²⁾ 여기서 언급된 수원읍내장은 수원읍치가 팔달산 자락으로 이전하는 1789년보다 이전 시기의 수원장으로써, 이전한 수원장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의 섬과 포구를 거쳐 들어오는 물자를 서울로 연결하는 남양장을 포섭할 수 없었고, 수원장의 배후 하천인 진위-안성천 유역은 아산만을 하구로 하는 안성천에 진위천, 삽교천, 곡교천, 무한천이 지류로 연결되어 있어 수운의 종착지인 안성장과는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¹³⁾

1789년 수원읍치의 위치가 이전¹⁴⁾하면서 수원읍내장도 이동하였는데, 이전 초기에 수원읍내장은 거북산 아래쪽¹⁵⁾에 개설되었다. 읍치와 함께 새로이 이전한 수원장은 이전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입지적인 면에서 상업적인 유리함을 얻게 되었다. 화성 건설이 진행되면서 재구성된 수원장과 인근 지역의 다른 장시들과의 주요 도로망 관계¹⁶⁾는 장시체계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원장에서 발생한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문외장과 남문외장이 신설되었던 점인데, 1830년에 작성된 『임원경제지』에서 수원의 장시로 북문외장(2·7장)¹⁷⁾과 남문외장(4·9장)¹⁸⁾이라는 명칭이 확인되며 이 두 장시는 적어도 19세기 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에 작성된 『기전영지(畿甸營誌)』의 『수원부읍지』와 1899년에 작성된 『수원군읍지』에서는 남문외장의 존재만 기록되어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문외장은 19세기 중반~말기에 소멸되고 남문외장만이 잔존하여 수원읍내장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원장’이라 함은 곧 남문에 위치한 장시를 의미하는 용어로 변용되었으며 1904년에는 수원장이 남문을 기준으로 하여 성안장과 성밖장이 번갈아가며 개시되어 경쟁 혹은 협업 관

12) 읍내장 외의 수원 관내의 장시로는 안중장(安中場 : 1·6), 오타장(吾朶場 : 1·6), 석현장(石峴場 : 2·7), 오산장(鰲山場 : 3·8), 신기장(新機場 : 4·9), 사슬곶장(沙瑟串場 : 4·9), 팔탄장(八呑場 : 5·10)이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 확인된다.

13)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4p

14) 『정조실록』 권27, 13년 7월 15일(기해).

15) 현재 구천동 공구상가의 위치이며, 수원천을 마주하고 있다. 남문 인근에 ‘거북산당’이라는 도당곳이 현재에도 존재하는데, 영동시장의 상인들이 음력 7월 7일과 음력 10월 7일에 이 곳에서 시장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행하는 마을곳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원 영동거북산도당곳”, 2022년 6월 8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676>)

16) 18세기 말에 새로 조성된 읍치에서 시작된 수원은 여러 측면에서 종래의 도시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흔히 이야기되듯 상업히 활발한 도시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도로는 쉽게 볼 수 없다.(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2p)

17) 현재의 수원시 장안문 바깥쪽 위치에 해당한다.

18) 현재의 수원시 팔달문 바깥쪽 위치에 해당한다.

계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하였다. <표 1>을 통해 전근대 시기동안의 수원장의 변화 양상을 개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문(문안)장	남문(문밖)장
『동국문헌비고』 (1770)	읍내(1·6일)	
『임원경제지』 (1830)	북문밖(2·7일)	남문밖(4·9일)
『기전영지』 (1894)	×	남문밖
『수원군읍지』 (1899)	×	남문밖(4·9일)
『조선산업지』 (1909년 조사)	남문안(9일)	남문밖(4일)
『市街地の商圈』 (1923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朝鮮の市場經濟』 (1926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상공수산통계』 (1931년 조사)	성안(9일)	성밖(4일)
『朝鮮の市場』 (1938년 조사)	성안(4·9일)	성밖(4·9일)
김성훈(1977)(1976년 조사)	상설시장화(남문밖 4·9일장 지속)	

<표 1> 18~20세기 수원 장시의 변화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27p 재구성)

해방 이후의 수원의 전통시장 현황 역시 지역자료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1954년에는 수원 관내에 3개의 시장¹⁹⁾이 있었다고 확인된다.²⁰⁾ 이들 시장의 평균 거래액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므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원시가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1956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내에 4개의 시장²¹⁾이 확인되며²²⁾ 이 중 일부는 현재 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영동시장의 경우 1919년에 설립되어 팔달문 일대의 전통 시장들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포목이나 한복 등의 의류 및 원단이 특화된 시장으로, 수원시에서 상인조직이 가장 먼저 설립된 시장이기도 하다. 1953년 영동시장번영회가 설립되었고, 영동시장의 전쟁피해 복구를 위해 시가지와 점포·상가들을 재구획하는 과정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전쟁 피난민들과 마찰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후 1961년 수원시의 『제1회 통계연보』를 통해 1960년의 시장현황에는 이전의 4개 시장에서 제1수원천시장과 제2수원천시장이 추가되어 총 6개의 시장이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시장법」 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양상은 큰 변화를 띄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시장의 수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이

19) 이상열(2014)에서는 이 3개의 시장을 영동시장, 매산시장, 가축시장(우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중권, 1956, 669p

21) 성안으로 통합된 북수동 가축시장, 영동시장, 매산시장, 남수동의 신탄시장

22) 수원시 공보과, 『시세일람』, 1956, 153~154p

상열(2014)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도시 개발의 영향이다. 이전의 수원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화성 일대에서 벗어난 동수원과 같은 도시 외곽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외곽 지역에도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중심지를 벗어난 지역에도 전통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노점상 단속으로 인해, 기존의 노점상들이 전통시장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 역시 큰 성장세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와 같은 도시화 과정이 전통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대형 백화점과 마트의 등장과 전자상거래의 상용화는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第五節 市場現況				
第一節 一般市場與家畜市場 四二八年十二月末日現在				
市場名	所在地	管理者	設立年月日	區域坪數
新炭市場	南水洞	水原市	四二八・一・一〇	一八三六
家畜市場	北水洞	水原市	四二八・七・二九	二・三三三
梅山市場	梅山路街七	水原市	四二八・二・二六	六八六三
榮洞市場	榮洞六	水原市	四二八・一・一七	一・五五五

<그림 1>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153p 일부

지금까지 조선 후기 화성 축조가 된 시기부터 현대까지의 수원 장시의 존재 양상과 변화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팔달문 일대의 9개 전통시장, 즉 소위 ‘남문시장’의 분화과정과 그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는 한 눈에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남문시장’, 즉 팔달문 일대 9개 전통시장의 특성에 대해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과 입지조건, 그리고 각 시장의 구별되는 문화가 존재한다면 이들의 분화과정과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방 및 전쟁 이후 수원 팔달문 일대 시장의 상인조직의 존재양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술했던 수원 장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면, 제도적인 지원 아래 전통시장이란 개념이 정착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상인조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인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그들의 상업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노점상과 같이 팔달문이라는 동일한 상업 공간 내의 다른 집단과 모종의 이유로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팔달문 일대 시장들의 분화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작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셋째, 전통시장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연구대상인 수원 팔달문 일대의 9개의 시장들은 전근대의 장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은 현대의 시장 제도와 함께 등장한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팔달문 일대 9개의 전통시장이 공식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점과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이들의 변화과정에 대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위 제시한 세 가지 연구목적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해 시간적 범위로는 해방 이후의 시기로, 공간적 범위로는 현재의 팔달구 지동 일대에 위치해있는 ‘수원남문시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시간적 범위에 대해 해방 이후로 설정한 배경에는 한동민(2012 : 2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방과 한국전쟁이란 큼직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수원은 1960년대 이후 피난민들의 광범한 유입과 함께 가장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인 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인구 급증과 도시의 안정화는 곧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전통 시장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한 외지인의 유입은 시장이라는 공간과 상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눈에 띄는 변곡점을 그려냈을 것이라 생각되기에 위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23) <표 2> 1960~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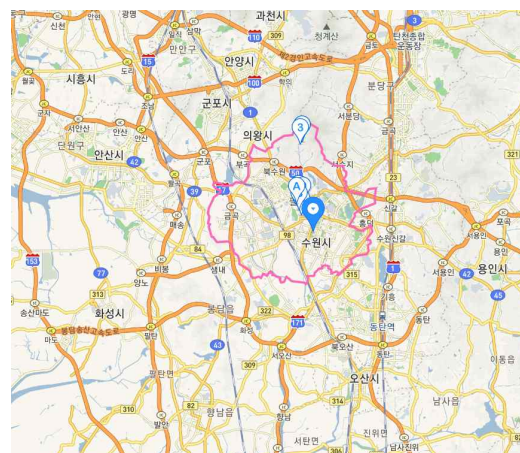
3. 지역 개괄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 소재로 인근의 안양, 군포, 의왕 등과 함께 도시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담도시화²⁴⁾가 되어있는 도시이다(이상환, 2016). 동쪽으로는 용인시가, 서쪽으로는 안산시와 화성시 매송면이, 남쪽으로는 화성시 태안읍, 북쪽으로는 의왕시와 근접해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와 수도권 서울특별시까지의 접근성도 매우 용이하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1번국도, 경부선 철도,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같은 주요 간선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으로 경기 남부 수도권의 교통 요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5월 기준 면적 121.03km², 총 인구 1,178,512명, 세대수 518,135가구²⁵⁾의 규모로 4개의 구²⁶⁾로 나뉘어져있는 도시이다.



<그림 2> 수원시 행정구역도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그림 3> 수원시 및 주변지도
(출처 : 카카오맵)

‘수원(水原)’이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고려사』 「지리지」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⁷⁾ 1271년에 ‘수원’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였고 수주목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1310년 다시 ‘수원부’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에 수원부에서 수원도호부가 되었고, 1793년 정조의 화성 건설 계획과 함께 수원유수부로 승격되어 불리게 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수원군은 21개 면 279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개편안에 의해 일부 영역 변동이 있었다.²⁸⁾ 이후 1931년 수원군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속해있던

24) 여러 도시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본래 별개의 도시였던 여러 도시가 교통의 발달로 도시권이 확대되면서 인접한 도시와 결합해 형성된 도시를 뜻한다.(이우평, 2002,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용어사전)

2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06.10., <https://jumin.mois.go.kr/>)

26)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27) “원종 12년에 착랑 주둔 몽고 군사들이 대부도에 침입하여 그 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 사람들이 격분하여 원한을 품고 몽고 군사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 안열이 부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을 진압하였는바 그 공로로 하여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으로 되었다가 충선왕 2년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부로 되었다.”(『고려사』 권56 제 10 지리1 양광도 수주)

28) 1914년 수원군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영흥면 및 대부면을 제외한 남양군 전역과 광주군 및 안산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36년에는 이 승격된 수원읍의 영역 확장까지 이루어졌다. 1949년에 이르러서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원읍이 ‘수원시’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 때의 영역은 1936년에 수원읍으로써 확장된 영역과 같았다. 반면 기존의 수원군은 경기도 화성군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을 기점으로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가 되었다. 경기도 수원시는 1963년에는 20개의 동을 포섭하게 되었고, 1967년에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고,²⁹⁾ 이후 용인시 수지면의 일부와 화성군 매송면의 일부 역시 수원시로 편입되어 지금의 수원시 영역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³⁰⁾

수원은 과거에서부터 한반도의 중심지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도읍이었던 한양과의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 개발과 같은 예시들이 이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이처럼 북쪽으로는 중심지와 붙어있는 수원은, 경기도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수원을 거처가는 교통로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동여도』(그림 4)와 『대동여지도』(그림 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용인, 진위, 남양, 안산, 이천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로가 모두 수원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조선 후기 정조의 화성 축조와 그로 인한 도로 재구획을 통해 더욱 짙어진다. 화성과 행궁의 건설은 지형적 여건, 주민 편의, 성문 배치, 성곽 내부의 하천과 수문, 성곽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운반 등과 같은 요인들을 발생시켰고(손승호, 2014)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성 내부에는 ‘십자로’라 불리는 도로망과 교차로가 조성되었다.³¹⁾ 또한 이러한 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조는 수원 시가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거상과 부유층을 화성 내부로 이주시켜 시장을 건설하고 장시를 둠으로써, 수원이 교통과 상품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변영책의 일환으로 수원 주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상설시장이 건설되었으며, 관아에서 운영하는 장시가 정기시장의 형태로 설치되어 개장되었다. 정기시장은 농산물·축산물을 위시하여 직물·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큰 장터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손승호, 2014 : 472~480p).

조선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수원의 지리적 이점은 근·현대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이 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11년 총독부가 공포한 「도로규칙」은 전국의 도로들의 노폭이 등급에 따라 개수되었고, 수원과 화성을 통과하던 주요 도로들 역시 이의 영향을 받아 이후 국도가 되는 과정을 보인다. 동시에 1905년에 개통한 경부철도의 수원역이 팔달산 서쪽에 건설됨에 따라 수원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1930년에는 일제의 주도 하에 여주 일대의 미곡 유통을 목적으로 수여선이 건설되었으며, 1937년에는 항구도시인 인천과의 유통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인선이 건설되기도 하였다. 비록 수탈의 목적으로 건

지역의 일부를 병합한 것, 그리고 기존 수원군 땅이었던 일부 지역을 진위군에 넘겨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9) 경기도청은 조선 초기 경기도 편성 이래로 계속 한성에 있다가, 1896년 13도제를 실시할 때 잠깐 수원에 있었고, 1910년 합병과 함께 다시 경성으로 올라갔었다.(김종혁, 「수원의 영역 변동과 교통의 역사지리」, 『수원학-지리·역사』, 수원시정연구원, 2016, 1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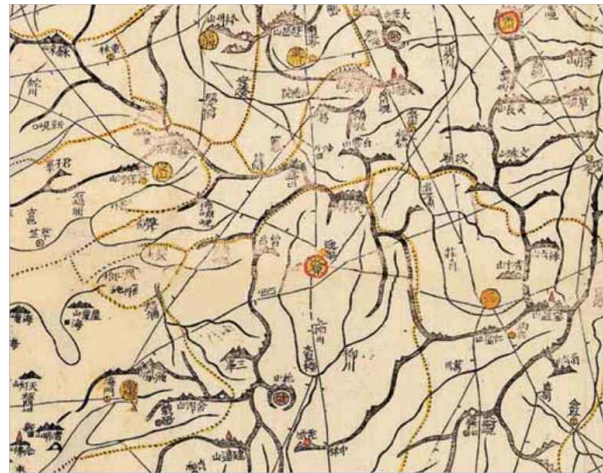
30) 1988년에 장안구와 권선구를 신설, 1993년에는 팔달구, 2003년에는 영통구를 연달아 신설하여 현재의 4개구로 이루어진 수원시 행정구역이 정착되었다.

31) 이 도로망의 교차점이 지금의 화성행궁을 마주보고 있는 ‘종로사거리’이다.

설된 수여선과 수인선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철도 외의 도로교통의 활성화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되어 1972년과 1995년에 각각 폐선되기에 이르렀으나³²⁾, 이러한 철도망과 역의 신설에 따른 교통과 유통 네트워크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수원의 도시공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 『동여도』에서의 수원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로(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74p)



<그림 5> 『대동여지도』에서의 수원과 주변 지역 광역교통로(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75p)

지금까지 본 연구에 앞서 필요한 수원이란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와 행정구역, 교통망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수원이라는 지역이 조선시대부터 지니고 있던 지리적 이점이 곧 도로망과 철도망과 같은 근·현대의 교통 개발로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쇠퇴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수원이라는 지역과 과거 수원의 중심부였던 팔달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나 근·현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수원이라는 도시 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보를 바탕으로 남문 일대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할 것이다.

32) 다만 수인선의 경우 2016년 2월 27일에 송도역과 인천역까지 개통하며 수원역을 중점으로 하던 분당선과 직결 운행 형태로 재개통하였다.

연도	세대수(세대)
1960	16,498
1961	15,870
1962	20,340
1963	20,877
1964	21,204
1965	21,665
1966	23,169
1967	23,600
1968	26,495
1969	29,481
1970	33,451
1971	34,264
1972	35,747
1973	37,799
1974	42,763
1975	46,645
1976	47,812
1977	49,989
1978	54,771
1979	60,016

<표 2> 1960~1970년대 수원시 인구 변화(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402p 재구성)

<참고자료>

『東國文獻備考』

『高麗史』

『畿甸營誌』

수원시 공보과 편, 『시세일람』, 1956

수원시, 『수원시세일람(水原市勢一覽)』, 1958

수원군, 『수원군지(水原郡地誌)』, 1929

김백영,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김종혁, 「수원의 영역 변동과 교통의 역사지리」, 『수원학-지리·역사』, 수원시정연구원, 2016

김찬수, 「수원의 철도교통 변화」,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남선녀, 「水原市 路店商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성주현, 「근대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 수원」, 『수원학연구』 2호, 2005

손승호, 「수원이 도로망과 도로교통 변화」,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안승택, 「가속화하는 근대화와 수원 토박이들의 대응」, 『수원시사 11 :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윤효진, 「근세 이후 수원의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 『수원학연구』 2호, 2005

이동근, 「일제강점기 식민지적 도시변화와 수원 화성」, 『수원학연구』 5호, 2008

이상열, 「해방 후 수원의 전통시장 변화」,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이상환, 「수원의 자연지리와 환경」, 『수원학-지리·역사』, 수원시정연구원, 2016

이재환, 「조선시대 읍치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

이정일, 「19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변화 - 인구와 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 지역의 장시연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이창수,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정승모, 「수원의 장시체계 변화」,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정승모, 「일제하 수원의 상업과 상권 변화」,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주 혁, 「수원 장시의 어제와 오늘-18세기 후반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수원 장시의 변화」, 『수원학연구』 7, 2010

최자운.김상범, 「영동시장과 수원-수원 지역 토박이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7, 2010

수원시 홈페이지(2022. 05. 13., <https://www.suwon.go.kr/index.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원영동거북산도당굿”, 2022년 6월 8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67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2.06.10., <https://jumin.mois.go.kr/>)